

# 2019 세계수영선수권 부담 덜었다

### ‘2017 헝가리’ 챔피언십·마스터스 분리 개최... 선수촌 규모 축소 ‘4500세대’ 건립 난항 광주 ‘숨통’... 광주시 “FINA와 협의할 것”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대규모 선수촌 조성 방침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여 대회 성공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챔피언십(프로)과 마스터스(아마) 대회가 일정기간(4일) 동시에 열리는 탓에 4500세대를 건립해야 했지만, 2017년 헝가리 대회에선 양 대회를 분리 개최하기로 하면서 선수촌 건립 규모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4500가구 건립을 계획 중인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에 대한 규모 축소 여부 등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4일부터 러시아 카잔에서 개막한 2015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벤치마킹 하고, 2017년 대회 개최도시인 헝가리의 선수촌 규모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해 선수촌의 규모를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특히 애초 2021년 대회 개최국이었던 헝가리가 2017년 대회 개최 예정국이었던 멕시코의 대회 포기로 개최시기를 2017년으로 앞당기는 대신 선수촌 축소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9년 광주대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헝가리는 대회 개최시기를 4년 앞당기는 대신 양 대회의 중복기간을 없애 선수촌을 1개 대회분만 건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챔피언십 대회 폐막 후 2일 정도 휴식기를 가진 뒤 마스터스 대회를 개막하는 방식이다.

FINA(국제수영연맹)는 대회총행 등을 이유로 챔피언십과 마스터스 대회기간을 4일 이상 겹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카잔 대회도 4일동안 양 대회가 함께 열리는 일정 때문에 선수촌도 각 대회별로 분리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19년 대회 개최도시인 광주시는 러시아 카잔 방식으로 선수촌을 건립할 경우엔 4500세대가 필요하지만, 헝가리의 제안대로 선수촌이 건립되면 2500~3000세대 규모면 충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4500세대 중 재건축구역인 광산 송정주공(최소 1200여 세대)과 재개발구역인 동구 계림8구역(확정 2401세대) 등

3500여 세대를 마련했지만, 나머지 1000여세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계림8구역은 호반건설이 20개동 3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지난 5월 건축심사가 통과되는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실측 과정에서 일부 작은 면적과 주 출입로(정문)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1개 차선을 추가 등이 수정 보완돼 8월 1일자로 재고시될 예정이다.

송정 주공은 중흥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고도제한 등 제약에 걸려 공공 제1전투비행단과 협의를 진행, 애초 15층에서 20층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챔피언십과 마스터스 대회의 일정이 겹칠 경우엔 선수촌 마련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FINA와 협의를 통해 2017년 헝가리 대회처럼 양 대회를 분리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미래 먹거리 터전’ 광주 첨단3지구 개발 속도

### 시, 주택용지 비율 17%로 대폭 하향...국비도 적극 유치

광주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의 터전이 될 첨단3지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그동안 시의회의 지지를 받아온 주택용지 비율을 대폭 낮추고, 국비 지원 등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8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앞서 수정동의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월출동과 장성군 남면 일대 380만여㎡를 1, 2단계로 나눠 2025년까지 산업단지 조성,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보상비 4666억원을 비롯한 공사비 3746억원 등 모두 1조2177억원이다.

첨단3지구는 지난 2011년 정부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으며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 전자, 친환경자동차부품, 스마트커가전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공기업평가원 분석에서 신규 일자리 3만개 창출 등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등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마지막 산단 개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애초 6%에 불과했던 주택용지 비율을 23%로 대폭 상향하면서 시의회의 반대와 구도심 재개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현재 수개월째 도심 외곽 개발에 따른 구도심 침체 등을 이유로 개발동의안을 보류한 상태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아파트 부지와 상업용지를 팔아 남은 돈으로 산업용지를 평당 원가 60% 수준인 90만원대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아파트 건립보다는 취지에 맞게 산업용지를 대폭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애초 23%였던 주택용지 비율을 17%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에 참여하는 이 사업은 주택용지에 아파트 1만2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주택용지비율이 17%대로 조정되면 8000여가구가 줄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첨단3지구 전경. (점선 안)

## 광주 연구개발 특구, 혁신도시까지 확대키로

한전의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위해 광주 연구개발 특구를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28일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내 한전 본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이상무 한전 사장 등 기관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광

주 연구개발 특구에 혁신도시와 인근 산단 등을 포함한 에너지 밸리 조성 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광주시, 전남도가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에 정업, 연구기업 유치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오는 10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개발특구 확대(면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문화전당 예술극장 객석 왜 줄었지?

### 추진단 “실내 1120석·야외 600석 등 1720석”

### 시민들 “2000석 대규모 공연장 기대했는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대표하는 공간의 하나인 예술극장(대극장)의 정확한 관객 수용규모는 얼마일까.

28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술극장 대극장의 시설 등 설비작업을 완료한 결과 정확한 관객 수용 규모는 1720석이다. 세

부적으로 실내 좌석수가 1120석이고, 야외 객석은 600석(야외 무대 계단식 좌석)이다.

이는 애초 추진단이 발표한 2000석에서 실내 좌석이 1400석에서 1120석으로 축소된 때문이다. 추진단은 아시아문화개발원 측의 요구로 관람편의

를 위해 좌석을 넓찍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내 객석(280석)이 줄었다고 한다.

그런데, 시민들은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다. 극장의 내부 관람석을 2000석 규모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실외 좌석까지 포함한 수용인원이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연 예술계 관계자는 “통념상 실내 관람좌석이 2000개인 줄 알지 실외까지 포함한 수치라는 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현재 예술극장의 구

모라면 대형공연물을 무대에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술극장의 경우 객석과 무대를 아외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계돼 있어 실내의 수용인원을 포함해 관객수용 규모를 산정했다”며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예술극장 대극장은 대형 유리 커튼으로 벽면이 마감돼 있어 이를 양쪽으로 개방하면 야외 공연을 무대와 객석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추진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민들은 최대 관람석 2000개 규모의 대형 공연공간의 건립을 고대해왔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표문화전당 영문명칭 변경

Asian Culture Complex  
↓  
Asia Culture Center

‘Complex’ 부정적 이미지 탓  
일부 시설 명칭 변경도 검토

오는 9월4일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영문 공식명칭이 ‘Asia Culture Center’(ACC)로 변경됐다.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최근 명칭개정 위원회 등을 거쳐 문화전당의 영문 명칭을 기존 ‘Asian Culture Complex’에서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써온 영문 명칭 가운데 Complex가 문화전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애초 문화전당이 문화장조·유통 등 복합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Complex를 채택했으나 복합 건물이나 빌딩 단지의 뜻이 강하다는 것이다.

컴플렉스가 국내외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문화전당을 방문하는 대부분 외국인이 Complex를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측면도 감안됐다. 새로 채택한 ‘Center’는 아시아문화 교류의 중심이자 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전당은 명칭 변경에 따라 국내외 홍보물과 책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전당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민중평화교육원·문화정보원·문화장조·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 가운데 일부 공간의 명칭을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한글 이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름을 바꿀 수는 없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당신의 광장/집을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 투데이 경매

중흥동 대지 대인교차로인근 일반상업 지역 도로인접 오피스텔 무인텔 적합 대지 3190㎡ (965평) **감정가 40억 8천** **최저가 28억 2천**

전남 담양군 삼만리 담양 예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식품가공공장 (단층건물 4동 기계기구 포함) 대지 5636.5㎡ 건물 873㎡ **감정가 9억 8백** **최저가 6억 3천 6백**

전남장성군 북이면 식품공장 백양사 IC인접 교통입지우수 2012년 신축건물 투자적합 NPL가능, 공장 창고 임대가능 대지 9341㎡ 건물 2031㎡ **감정가 41억 4천 7백** **최저가 11억 9천**

1.광주 평동공단 공장 대지 2073㎡ 건물 1187㎡ **감정가 16억 3천** **최저가 9억 1천**  
2.화순 도곡면 천암리 공장 대지 2811㎡ 건물 1474㎡ **감정가 7억 6천** **최저가 5억 4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